

가족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구축과 예비조사 결과*

초록

- ▶ 저출생·고령화와 가족다양성 확대 등 가족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혼, 출산, 돌봄, 경제활동, 세대관계 등 개인과 가족의 생애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한국가족패널조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성과를 계승하여 조사대상을 만 19~49세 남녀 12,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 혼합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비교조사인 세대와 성별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의 국제 공통문항을 적용하여 가족변화와 가족·성평등 정책의 여건 진단 및 중장기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 2024~2025년 예비조사 결과, 사실혼, 비혼동거, 비혼출산 등 기존 법적 혼인 중심 접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확인되었음. 또한 가사·돌봄 부담 경험에 따라 여성의 출산 의향에 차이가 나타나, 출산 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가족 내 역할 분담이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자녀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이 확인되었으며, 가구유형과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났음.
- ▶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온라인조사 도입과 무응답 선택 허용이 뚜렷한 응답품질 저하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조사에서도 혼합조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사모드별 특성과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향후에는 조사 운영체계와 패널 유지 기반을 안정화하고, 파트너십과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가족구성 경험과 가족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조사로서 장기 추적이 가능한 국제비교 종단자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조선미·한진영·김은지·주재선·정성미·이다경·이서현·박민규·김수정·이근복·이혜정(2025).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 저출생·고령화, 가족다양성 증가 등 가족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혼, 출산, 돌봄, 경제활동, 세대관계 등 개인과 가족의 생애경험을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족·성평등 정책의 여건을 진단하고 정책효과 및 중장기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 구축이 필요함.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차 웨이브 자료를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돌봄 경험을 장기간 추적해 왔음. 이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자를 남녀로 확대하고 조사주기와 측정체계를 개편한 한국가족패널조사를 구축하였으며, 2026년 제1차 웨이브 조사를 실시하였음
- ▶ 가족다양성 확대와 가족구조 변화가 지속되면서 혼인·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을 넘어 다양한 가족관계와 생활양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조사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조사 방식만으로는 응답률 확보와 대표성 유지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응답자 접촉과 조사 참여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조사품질을 유지하면서 응답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혼합조사 기반의 조사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본지에서는 한국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과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가족구성 경험에 대한 주요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가족패널조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사례

가. 한국가족패널조사 설계 핵심 내용

- ▶ 한국가족패널조사(Korean Family Panel Study, KoFPS, 2026~)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2007~2025)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조사 대상, 조사주기, 조사방법 및 측정도구 등을 개편하여 설계하였음.
 - 조사대상: 만 19~64세 여성 약 10,000명 → 만 19~49세 남녀 약 12,000명으로 확대하여 성별, 세대별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구성 및 생애과정을 종합분석하도록 설계
 - 조사주기: 2년 주기 → 1년 주기로 전환하여 결혼, 출산, 동거 등 주요 생애사건의 발생 및 변화요인의 효과적 관측 가능
 - 조사방법: 대면조사(TAPI) 단일모드 → 대면조사(TAPI)와 온라인조사(CAWI·CAMI)를 결합한 혼합모드로 전환하여 응답자 접근성 및 조사품질 제고
 - 측정내용: 한국형 정책문항과 함께, 국제조사 ‘세대와 성별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의 공통문항을 병행 설계함으로써 국제비교 가능성과 국내 정책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

* 세대와 성별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출범한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P)의 국제조사로, 현재 약 28개국이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 중인 인구·가족 분야 국제비교 패널조사임. 생애과정, 파트너십 및 가족관계, 출산, 돌봄, 성역할 가치관 등을 종단적으로 측정함.

출처: GGP, Data,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https://www.ggp-i.org/data/generations-and-gender-survey/> (최종 접속일: 2026.6.8.).

여성가족패널조사(1기) → 한국가족패널조사(2기) 차이 비교

여성가족패널(KLoWF) 개선 과제		한국가족패널조사(KoFPS) 전환
여성 대상 설계 (초기 구축표본) 9,068가구 내 만 19~64세 여성 9,997명	조사 대상	여성과 남성 포함한 성평등 의제로 확장 (초기 구축표본) 12,000가구 내 만 19~49세 남녀 12,000명 목표
2년 주기 긴 주기로 주요 생애사건 전환 요인 분석에 한계	조사 주기	매년조사 생애사건 발생·측정 시점 간격 최소화로 전환 요인의 정밀한 분석 가능
혼인·혈연 중심 설계 제도 외 가족 다양성 파악 어려움	가족 개념	다양한 가족 포용 비혼동거·비혼출산 등 제도 외 다양한 가족 포함
TAPI 단일모드 응답 거부율 높음, 민간 문항 기피	조사 방법	혼합모드 도입 TAPI + CAW/CAMI: 응답자 접근성 확대
국제비교 표준 도구 부재 한국 중심의 측정 문항	측정 도구	GGS 국제 공통문항 한국문항과 국제표준문항 병행: 국제비교 가능

- ▶ 2026년 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전국 만 19~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3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적용하였음. 조사구의 확률비례추출, 가구 계통추출, 가구 내 개인 추출의 3단계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층화변수는 17개 광역시도, 동부·읍면부, 주거유형(아파트·비아파트)으로 구성함.

나. 예비조사 주요 분석결과***

1) 예비조사 기초 분포

- ▶ 2024~2025년 예비조사는 전국 만 19~59세 남녀 2,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별로는 대면조사(TAPI) 2,002명(76.0%), 온라인조사(CAWI·CAMI) 632명(24.0%)으로 나타났다.
-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341명(50.9%), 여성 1,293명(49.1%), 연령별 분포는 20대 568명(21.6%), 30대 601명(22.8%), 40대 701명(26.6%), 50대 764명(29.0%)으로 나타났다. 조사모드별로는 성별 분포는 전반적으로 균등한 가운데, 대면조사(TAPI)에서는 50대 비중(29.9%)이 가장 높았고, 모바일조사(CAMI)에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1〉 조사모드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대면조사		온라인 조사				합계
		대면조사(TAPI)		웹조사(CAWI)		모바일조사(CAMI)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성별	여성	975	48.7	47	47.0	271	50.9	1,293(49.1)
	남성	1,027	51.3	53	53.0	261	49.1	1,341(50.9)
연령	20대	439	21.9	20	20.0	109	20.5	568(21.6)
	30대	436	21.8	19	19.0	146	27.4	601(22.8)
	40대	528	26.4	27	27.0	146	27.4	701(26.6)
	50대	599	29.9	34	34.0	131	24.6	764(29.0)
합계		2,002	100.0	100	100.0	532	100.0	2,634(100.0)

주: 생물학적 성별 기준, 가중치 부여 전

* 예비조사는 본조사에 앞서 수행된 미승인통계로, 조사구가 아닌 집계구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였음. 이에 따라 본조사의 조사구 추출 및 층화설계를 적용한 결과와는 분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예비조사 분석결과는 2025년 10월 20일 기준 원자료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추후 데이터클리닝 및 가공변수 산출 방식 등에 따라 산출값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2) 항목 무응답 분석

- ▶ 온라인조사 도입과 모름·거절 응답 허용이 응답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항목 무응답 수준을 분석하였음. 모름·거절 응답 비율이 전체 문항의 5% 미만인 응답자는 82.8%(2,181명), 10% 미만인 응답자는 91.8%(2,418명)로 나타났으며, 30% 이상인 응답자는 2.3%(61명)에 그쳐 전반적인 응답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조사모드별로는 모름·거절 응답 비율 분포가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모름·거절 응답 비율이 5% 미만인 응답자 비율은 각각 82.8%, 83.0%, 10% 미만인 응답자 비율은 각각 91.6%, 92.7%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온라인조사 도입과 무응답 선택 허용이 응답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함.

〈표 2〉 무응답(모름 또는 거절) 비율

(단위: %, 명)

구분	대면조사		온라인 조사		총합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5% 미만	1,675	82.8%	506	83.0%	2,181	82.8%
5~10% 미만	178	8.8%	59	9.7%	237	9.0%
10%~30% 미만	119	5.9%	36	5.9%	155	5.9%
30~50% 미만	36	1.8%	6	1.0%	42	1.6%
50%~70% 미만	11	0.5%	2	0.3%	13	0.5%
70% 이상	5	0.2%	1	0.2%	6	0.2%
총합계	2,024	100.0%	610	100.0%	2,634	100.0%

주: 가중치 부여 전

3) 파트너십 및 가족 다양성

- ▶ 현재 파트너십 유형을 법률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배우자가 5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비혼(미혼)·파트너 없음(31.3%), 비혼·파트너 있음(7.4%), 사실혼(1.0%)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파트너십 상태도 확인되었음.
- ▶ 연령별로는 30~39세의 유배우 비율이 50.4%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비혼·파트너 없음의 비율도 39.5%로 나타났음. 사실혼 비율은 30~39세에서 2.6%로 가장 높았음.
- ▶ 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4.7%는 유배우자로 나타난 반면, 사실혼(0.7%)과 비혼·파트너 없음 상태의 출산 경험자(1.0%)도 일부 확인되었음. 이는 출산이 여전히 혼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혼출산과 같이 혼인 외 가족구성 경로의 식별 가능성을 의미함.

〈표 3〉 현재 파트너십 유형(법률혼 기준)

(단위: %, 명)

구분		비혼(미혼)			기혼			계
		파트너 없음	파트너 있음	사실혼	유배우	이혼	사별	
계(n=2,564)		31.3	7.4	1.0	58.0	1.9	0.3	100.0
성별	여성	27.5	6.2	0.9	62.7	2.0	0.7	100.0
	남성	35.0	8.5	1.2	53.5	1.8	0.0	100.0
연령	19~29세	72.8	21.6	0.2	5.4	-	-	100.0
	30~39세	39.5	6.7	2.6	50.4	0.9	-	100.0
	40~49세	13.0	2.1	1.6	81.0	2.2	0.1	100.0
	50~59세	7.0	0.3	0.2	87.3	4.0	1.2	100.0

구분		비혼(미혼)			기혼			계
		파트너 없음	파트너 있음	사실혼	유배우	이혼	사별	
교육 수준	고졸이하	33.7	9.9	1.5	51.5	2.7	0.7	100.0
	대졸이상	29.1	4.9	0.6	64.2	1.1	0.0	100.0
출산 경험	있음	1.0	-	0.7	94.7	3.0	0.6	100.0
	없음	67.9	16.2	1.5	13.8	0.6	0.0	100.0

주: 1. 가중치 부여 후

2. 전체 응답자(2,634명) 기준 표준화 가중치 적용. 무응답(모름/거절) 제외. 성별 분리 산출 시 '기타/규정할 수 없음' 응답자 1인 제외

4) 출산의향의 성별 격차와 구조적 요인

- ▶ 여성의 경우 파트너와의 가사분담에 만족하는 집단의 출산 의향은 11.0%인 반면, 가사분담에 불만족한 집단은 0.8%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음. 또한 가사분담에 불만족한 여성의 26.7%는 출산 의향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가사분담 경험이 출산 결정의 불확실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돌봄분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음. 돌봄분담에 만족하는 여성의 출산 의향은 6.3%였으나, 불만족한 집단에서는 출산 의향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고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45.5%에 달하였음.
- ▶ 반면 남성의 경우 가사·돌봄 분담 만족도와 출산 의향 간의 관계가 여성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출산 의향 형성 과정에서 가사·돌봄 분담 경험이 여성에게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4〉 파트너와의 가사·돌봄분담 만족도에 따른 출산 의향(향후 3년+언젠가)

(단위: %, 점, 명)

구분			향후 3년 이내/언젠가 출산 의향			계
			있음	없음	모르겠음	
여성	가사분담 (n=499)	만족	11.0	86.3	2.6	100.0
		보통	3.6	93.5	2.8	100.0
		불만족	0.8	72.5	26.7	100.0
		평균	7.67	6.74	3.64	6.67
	돌봄분담 (n=303)	만족	6.3	91.6	2.1	100.0
		보통	-	98.9	1.1	100.0
		불만족	-	54.0	45.5	100.0
		평균	7.67	6.70	3.69	6.57
남성	가사분담 (n=403)	만족	20.0	75.1	4.9	100.0
		보통	6.0	57.1	36.9	100.0
		불만족	7.6	92.4	-	100.0
		평균	8.02	7.57	6.88	7.60
	돌봄분담 (n=180)	만족	8.6	87.9	3.6	100.0
		보통	4.6	58.7	36.7	100.0
		불만족	31.0	69.0	-	100.0
		평균	8.04	7.86	7.18	7.84

주: 1. 가중치 부여 후

2. 전체 응답자(2,634명) 기준 표준화 가중치 적용. 무응답(모름/거절) 제외. 성별 분리 산출 시 '기타/규정할 수 없음' 응답자 1인 제외

3. 가사·돌봄부담 만족도(0=전혀 만족하지 않음~10=매우 만족함, 11점 척도) 만족=6~10, 보통=5, 불만족=0~4

4. 출산 의향: 모르겠음 및 현재 임신 중 제외(없음=전혀 없음+없을 것 같음, 있음=확실히 있음+있을 것 같음), 향후 3년 이내 또는 언젠가=둘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있음', 둘 다 없을 경우 '없음', 둘 다 모르겠음일 경우 '모르겠음'

5) 경제활동과 모성 패널티의 확인

- ▶ 여성의 취업률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38.2%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생 자녀 51.6%, 중고등학생 자녀 76.0%, 성인자녀 72.0%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영유아 자녀 가구에서 45.2%로 가장 높았음. 남성은 모든 집단에서 취업률이 95.4~100.0% 수준으로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0.0~3.5%에 그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음.
- ▶ 취업자 중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 비율은 여성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 가구에서 61.0%로 가장 낮았으며, 영유아 자녀 75.3%, 중고등학생 자녀 74.8%, 성인자녀 78.1%로 나타났음. 반면 남성은 모든 집단에서 94.8~98.1%가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음.

〈표 5〉 동거자녀 학령별 경제활동 현황(예비조사)

(단위: 명, %)

구분				영유아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 학생자녀	성인자녀
여성	경제활동 상태	계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38.2	51.6	76.0	72.0
			실업자	16.6	20.9	10.0	9.2
		비경제활동인구		45.2	27.5	14.0	18.8
	근로시간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36시간 이상		75.3	61.0	74.8	78.1
		36시간 미만		24.7	39.0	25.2	21.9
남성	경제활동 상태	계		100.0	100.0	100.0	100.0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99.2	100.0	99.3	95.4
			실업자	0.8	0.0	0.4	1.1
		비경제활동인구		0.0	0.0	0.3	3.5
	근로시간 형태*	계		100.0	100.0	100.0	100.0
		36시간 이상		94.8	97.6	97.6	98.1
		36시간 미만		5.2	2.4	2.4	1.9

주: 1. 가중치 부여 후

2. 전체 응답자(2,634명) 기준 표준화 가중치 적용. 무응답(모름/거절) 제외. 성별 분리 산출 시 '기타/규정할 수 없음' 응답자 1인 제외
3. 사례 수는 해당 학령기 자녀를 둔 응답자 수를 의미하며, 문항 특성상 중복응답이 가능함.
4. *근로시간 형태는 취업자에 한하여 산출

5) 생애주기 및 가구유형별 정신건강

- ▶ 외로움과 우울감은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보다 가구 경제활동 유형과 가구구성 유형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외로움은 여성외별이 가구의 남성(2.12점), 남성외별이 가구의 남성(2.09점), 둘 다 일하지 않는 가구(2.08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여성외별이 가구의 여성(1.65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
- ▶ 가구구성 유형별로는 1인가구(우울감 1.31점), 한부모(본인+성년자녀) 가구(우울감 1.29점), 그 외 가구(외로움 2.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나타났음. 반면 커플가구의 우울감은 1.19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 자녀 연령별 비교 결과,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없는 응답자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표 6〉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신건강(평균)

(단위: 점, 명)

구분			외로움(6점척도)				우울감(4점척도)			
			여성	남성	전체	사례 수 (가중)	여성	남성	전체	사례 수 (가중)
가구 경제활동 유형	맞벌이		2.01	2.01	2.01	825	1.26	1.24	1.25	829
	남성 외벌이		2.07	2.09	2.08	498	1.15	1.21	1.18	497
	여성 외벌이		1.99	2.12	2.03	21	1.65	1.42	1.58	21
	둘 다 일하지 않음		2.09	2.06	2.08	42	1.29	1.14	1.26	42
가구구성 유형	1인가구		2.03	1.99	2.01	397	1.29	1.32	1.31	395
	커플(+부모 포함)		1.93	2.03	1.99	286	1.26	1.14	1.19	285
	부모+본인(무배우)		2.05	2.01	2.03	596	1.23	1.22	1.23	595
	한부모(본인+미성년자녀)		2.05	2.03	2.04	729	1.25	1.25	1.25	725
	한부모(본인+성년자녀)		2.05	2.06	2.06	506	1.29	1.29	1.29	511
	그 외 가구		2.07	2.22	2.14	43	1.22	1.18	1.20	43
자녀 유무	영유아	있음	2.03	2.03	2.03	2,293	1.28	1.25	1.27	2,282
		없음	2.08	2.01	2.06	283	1.17	1.20	1.18	281
	초등학생	있음	2.02	2.03	2.02	2,202	1.26	1.25	1.25	2,190
		없음	2.13	2.02	2.09	373	1.29	1.24	1.27	372
	중고등학생	있음	2.04	2.03	2.03	2,324	1.25	1.25	1.25	2,313
		없음	1.99	2.04	2.01	252	1.36	1.22	1.29	249

주: 1. 가중치 부여 후

2. 전체 응답자(2,634명) 기준 표준화 가중치 적용. 무응답(모름/거절) 제외. 성별 분리 산출 시 '기타/규정할 수 없음' 응답자 1인 제외

3. 평균값이 높을수록 외로움 또는 우울감 높음

3 정책제언

가. 요약 및 결론

- ▶ 한국가족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을 남녀로 확대하고, 1년 주기 조사와 혼합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비교 체계를 적용하여 가족구성, 파트너십, 출산, 돌봄 및 생애과정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 예비조사 결과, 미혼 파트너십과 사실혼,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가사·돌봄 분담 경험에 따른 여성의 출산 의향에 차이가 나타났음.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과 가구유형 및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도 확인되었음. 이는 가족변화와 저출생 현상이 파트너십, 돌봄, 경제활동,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
- ▶ 예비조사에서는 온라인조사 도입과 무응답 선택 허용이 응답품질 저하로 직접 이어지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향후 본조사에서는 조사모드별 응답 특성 및 대표성과 함께 문항별 무응답 발생 수준과 응답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단기 과제

-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사, 자료 정제, 가중치 산출 및 원자료 개방이 연계되는 조사 운영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 혼합조사 체계 도입에 따라 조사모드별 응답 특성과 모드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가중치 보정 및 이용자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자료 대표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파트너십(연애·결혼), 임신·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구성 경험에 관한 주요 생애사건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종단조사 운영 기반과 패널 유지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중장기 과제

- ▶ 저출생·고령화와 가족다양성 확대에 대응하여 가족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가족패널조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다양한 가족구성과 생애과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지속 개선하고, 가족·성평등 정책의 변화와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국내외 패널조사와의 연계 및 종단 비교연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족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조선미, 한진영, 김은지, 주재선, 정성미, 이다경, 이서현, 박민규, 김수정, 이근복, 이해정(2025).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2025). 저출생·가족패널조사(현 한국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원자료.
GGP, Data,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https://www.ggp-i.org/data/generations-and-gender-survey/> (최종 접속일: 2026.6.8.).

주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